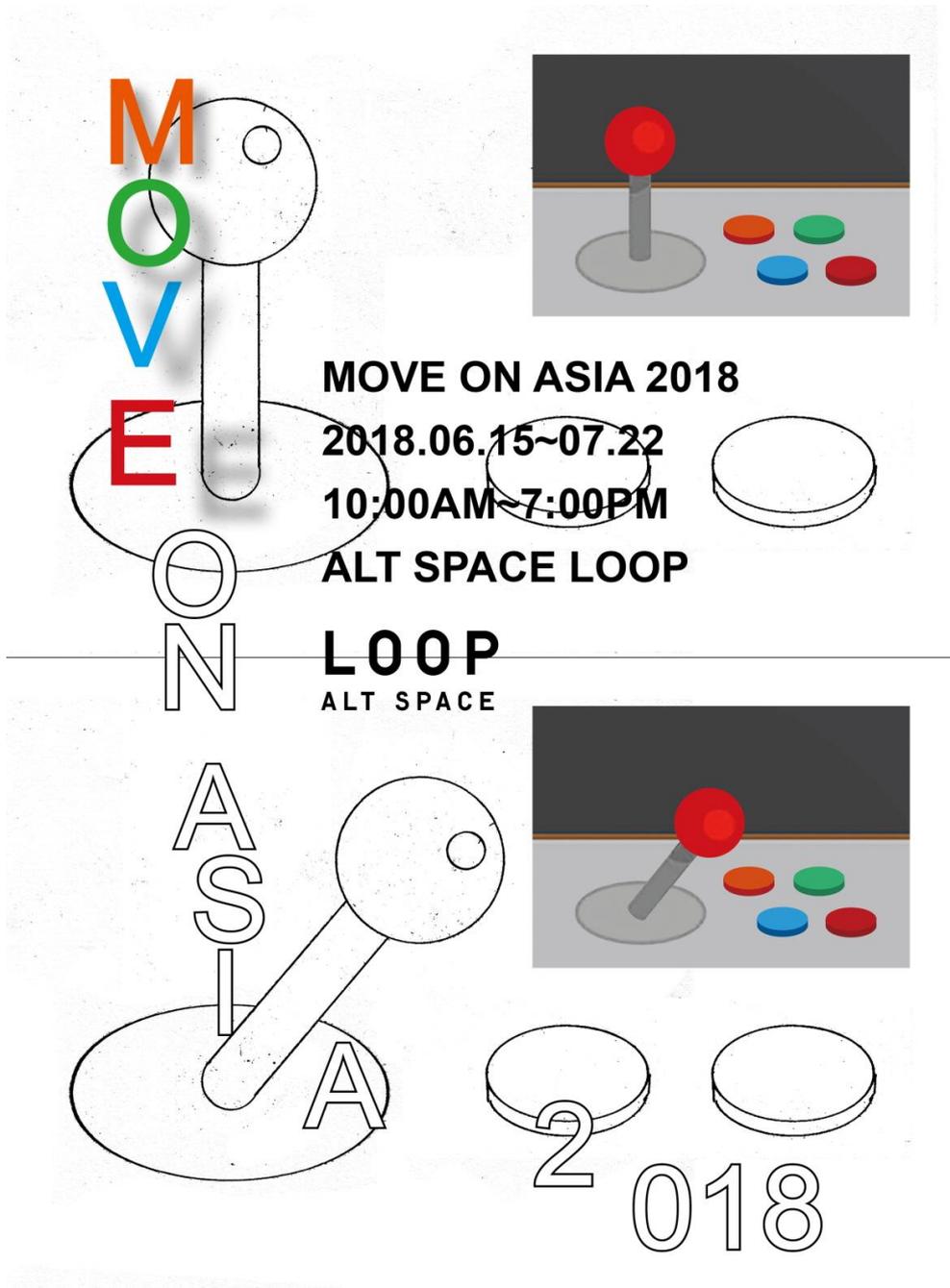


[보도자료]

무브 온 아시아 2018

Move on Asia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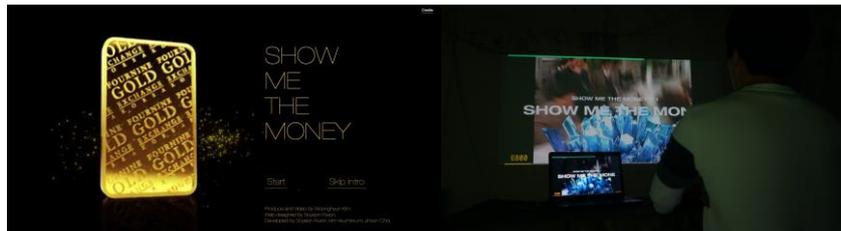


아시아의 큐레이터 8인이 추천한 아티스트 15인의 무빙 이미지 콜렉티브 전시

포스트-디지털 사회에 반응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후 제작 가능한 예술 작업들을 집중 소개

오프닝: 6월 15일(금) PM 6:00 / 대안공간 루프

오프닝 이벤트: 김웅현 <쇼미더머니> 게임대회 개최



김웅현, 쇼미더머니, Online game box, computer, projector, variable installation, 2018ver.

1. 개요

전시제목: 무브 온 아시아 2018 Move on Asia 2018

전시기간: 2018년 6월 15일(금) – 7월 22일(일)

전시장소: 대안공간 루프

관람시간: 10:00am – 7:00pm / 입장료 없음

오프닝: 2018년 6월 15일(금) PM6:00, 대안공간 루프

오프닝 이벤트: 위기에 처한 한국을 구하기 위한, 김웅현 <쇼미더머니> 게임대회를 개최합니다.

참여작가: 김웅현(한국, b. 1984), 권하운(한국, b. 1981), 조규빈(한국, b. 1986), 코라크릿 아루 나논드차이(태국, b. 1986), 웅 핑(홍콩, b. 1984), 쉐 신(중국, b. 1990), 쉐 동(베트남/스위스, b. 1982), 나츠미 아오야기(일본, b. 1990), 료 히라노(일본, b. 1988), 유안 케루(중국, b. 1990), 수 휘유(대만, b. 1976), 아흐멧 오곳(터키, 1981), 베이든 페일숄프(호주, b. 1984), 야손 바날(필리핀, b. 1972), 하이탐 인나사르(팔레스타인, b. 1985)

협력 큐레이터: 그리티야 가위윙(짐통슨 아트센터, 디렉터), 리전화(2018 선전 애니메이션 비엔날레 총감독), 아이삭 령(비디오타지, 디렉터), 알렉시 글래스-캔토(아트스페이스, 디렉터), 양지윤(대안공간 루프, 디렉터), 우 다 쿠엔(타이완 컬처럴랩, 수석큐레이터), 패트릭 D. 플로리스(2019 싱가포르 비엔날레, 예술감독), 히사코 하라(오사카 전기 통신 대학교(OECU), 교수)

2. 전시소개

2004년 시작한 무브 온 아시아는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큐레이터들이 각 주제 아래 무빙 이미지를 선정하여 하나의 전시를 만드는 콜렉티브적인 전시다. 이는 현대 미술 전시를 국가적 차원에서 민족 국가 건립의 홍보 도구로 사용하거나 아시아 태생의 예술가들을 국적으로 분류하는 과거 관습에 대해 아시아 현대 예술 커뮤니티가 자주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민족-국가라는 근대 서사를 넘어서 문화 이질성에 기반한 아시아라는 개념이 갖는 복잡성과 다층성을 함께 이해하고 소개하려는 예술적 실천이다.

무브 온 아시아 2018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 인터넷과 물리적 세계가 뒤섞인 현실, 디지털 '이후'의 포스트-디지털 환경을 그 주제로 한다. 이 환경은 중립적이지 않다. 인간의 감각이나 사회 문화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성을 갖는다. 또한 글로벌리즘의 근본적 확장과 신자유주의의 대대적 점유 속에서 아시아는 지금 또다른 정체성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배타적인 자민족중심주의에 물든 아시아는 사라지고, 경제적 가치와 대중 문화 산업 시장에 의해 재편된 아시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전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후의 무빙 이미지 제작에 있어 아시아 예술가들이 갖는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탈국가적이다. 지역적 미감으로 대변되었던 과거 문화의 상징 기호들은 지금 무빙 이미지의 소재들로 전면적으로 사용되며 또다른 내러티브를 구성한다. 코라크릿 아루나논드차이의 <재미있는(기이한) 이름들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역사로 그린 그림3>에서는 불어와 태국어 내레이션이 섞인 힙합 음악과 함께, 진jean을 입고 머리를 염색한 아시아인들, 방콕의 고층건물과 불교 사찰이 병치된다. 웅 핑의 <아빠가 누구니>라는 원색의 팝아트 미감을 담은 애니메이션에서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자를 통해 경험하는 페티시, 섹슈얼리티의 문제, 인간의 경계에 대해, 국적을 초월하여 동시대 젊은 세대가 갖는 이슈들을 여과없이 드러낸다.

혼종적이다. 참여 예술가들은 신자유주의 시대 비즈니스 브랜딩이나 대중문화 차원에서 통용되는 무빙 이미지의 소비 방식들을 차용하여 제 작업 제작의 방식으로 사용한다. 기업 마케팅용 프리젠테이션의 양식을 차용한 베이든 페일솔프의 <피치 데크>는 문화 자본에 기반한 비즈니스의 잠재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한 무빙 이미지를 소개한다. 아흐멧 오곳의 <단결>은 한국 만화라는 형식을 차용하여, 한국과 터키의 시위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이한열과 에네스 아타를 추모한다. 김웅현의 <헬보바인과 포니>는 마이리틀포니를 광적으로 소비하는 성인들을 일컫는 브로니brony 문화에 김정은을 합성한다.

전시는 또한 무빙 이미지를 화이트 큐브에서 관람하는 방식에 대한 실험이기도 하다. 화이트 큐브 전시 공간에 무빙 이미지 작업들을 병렬적으로 프로젝션하는 대신, 무빙 이미지를 관람하는 관습화된 방식인 영화관의 방식을 활용한다. 포스트-디지털 사회만큼이나 형식이 내용을 전달한

다는 가치만이 전면화된 사회는 없는 듯하다. 무브 온 아시아 2018은 제도화된 형식의 차용과 과도한 이미지 합성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예술로서 재현한다.

글: 양지훈, 대안공간 루프 디렉터

3. 스크리닝 스케줄

Move on Asia 2018 상영시간: 10:00am / 1:00pm / 4:00pm

10:00am / 1:00pm / 4:00pm

권하윤, 489년, 11분 18초, 2016

나츠미 아오야기, 인큐베이션 다이어리, 20분 51초, 2016

료 히라노, 홀리데이, 13분 46초, 2011

베이든 페일솔프, 피치 데크, 5분 15초, 2017

윙 핑, 아빠가 누구니, 9분 15초, 2017

11:00am / 2:00pm / 5:00pm

수 휘유, 더 워커, 19분, 2017

김웅현, 언리얼(헬보바인과 포니), 16분 47초, 2017

셴 신, 나이팅게일의 도발, 23분, 2017

12:00pm / 3:00pm / 6:00pm

아흐멧 오곳, 단결, 3분, 2016-2017

유안 케루, 부유하는 낯선 이들, 27분 10초, 2017

코라크릿 아루나논드차이, 재미있는(기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역사로 그린 그림 3, 24분 55초, 2015

야손 바날, 피에스타 필리버스터, 3분 19초, 2015

4. 대표작품 소개

(1) 웡핑, 아빠가 누구니



Wong Ping, *Who's the daddy*, 싱글 채널 애니메이션, 9분 15초, 2017

<아빠가 누구니>는 네온 색상의 코믹한 캐릭터들이 갖는 시각적 즐거움과는 대조적으로 매 장면 어두운 서사가 전개된다. 작품 속 주인공은 데이팅 앱에 올린 프로필 사진으로 판단하여 한 여인을 만난다. 이 둘의 관계가 진전되면서 페티시와 섹슈얼리티, 종교적 신념과 정치사회적 이슈들이 뒤섞인 복합적 내러티브가 구성된다.

>> 작가 소개

홍콩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웡 핑은 현재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과 뉴뮤지엄의 전시에 참여하면서, 국제적 미술계에서 큰 인기와 함께 급부상하는 애니메이션 감독이다. M+, 나우니스와 프라다로부터 커미션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했고, 최근 퍼스펙티브의 <40세 미만의 40인> 상을 수상했다. 맨체스터, 홍콩, 이스탄불, 베를린과 파리 등에서 작품을 전시했다. 그의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벨기에와 영국, 멕시코와 호주 등의 국제 페스티벌들에서 상영됐다.

참고 자료 링크:

<https://www.nytimes.com/2018/05/18/arts/design/wong-ping-guggenheim-one-hand-clapping.html>

(2) 권하윤, 489년



권하윤, 489년, 싱글 채널 비디오, 11분 18초, 2016

<489년>에서 권하윤은 남한과 북한 간의 DMZ에서 군복무를 했던 군인의 내레이션을 따라 이 지역을 3D 애니메이션으로 재현한 풍경이 펼쳐진다. 한반도 분단의 지정학적 현실과 폭력성, 신화적 공간의 투영된 이미지를 폭넓게 담는다. 이 작업은 금지된 영역의 픽션과 판타지가 상주하는 공간을 재현한다. 지극히 사실적인 DMZ의 디지털적 재현은 관객으로 하여금 또다른 잠재된 환상을 촉발시키기도 한다. 작가는 DMZ를 불안과 경이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시각화한다.

>> 작가 소개

권하윤은 한국과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작가다. 그는 2006년에 낭트에서 공부했고, 2011년에 투르쿠앵의 프레스노이 국립 현대 미술 스튜디오에서 어너(2011)를 받으며 졸업했다. 작가는 2017년에 아트 리뷰지로부터 유망한 작가 12인에 선정되었다. 그의 작품들은 파리 퐁피두센터의 시네마 뒤 릴 페스티벌(2014)과 뉴욕 모마의 닥 포트나이트(2017)에서 상영된 바 있고, 최근에 파리 팔레 드 도쿄에서의 <새 여인(2017)>에 참여했다.

(3) 유안 케루, 부유하는 낯선 이들



Yuan Keru, Fleeting Strangers, 싱글 채널 비디오, 27분 10초, 2017

<부유하는 낯선 이들>은 4개의 평행 세계를 시각화 하며, 4개의 가벼운 공상 과학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4개의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시험 대상, 관리자, 생존자, 사이보그로 구성된다. 그들은 과학 발전과 시스템 조작에 프라이버시를 침해 받고 권리를 빼앗긴다. 이러한 계급과 운명의 사슬을 벗어나 자기 구원을 이루고자 하지만, 결국 그들은 배정받은 캐릭터를 탈출하는데 실패한다. 유안 케루가 최근 집필한 4개의 가벼운 공상 과학 이야기들을 추출하고 재편집하고, 내러티브들을 재구성한다. 그 핵심에는 포스트모던 인류의 모순된 모습과 그 결과로 초래된 존재의 상실 그리고 블랙홀과 같은 외로움을 반영한다.

>> 작가소개

중국 항저우에서 태어난 유안 케루는 현재 상하이에서 비주얼 아티스트, 영화 제작자로 활동 중이다. 그림의 감각, 공간 리듬 및 비디오의 서사를 탐구하고, 진행 중인 사건, 감정을 역사, 신화, 꿈 등과 결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소설 원고를 집필하고 텍스트 구조를 분해하고 반 즉흥적인 공연과 대화를 준비 등을 통해 영화의 감각과 드라마의 화려함을 담은 영상을 제작한다.

(4) 코라크릿 아루나논드차이, 재미있는(기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역사로 그린 그림 3



Korakrit Arunanondchai, Painting with History in a Room filled with People with Funny Names, 싱글 채널 비디오, 24분 55초, 2015

<재미있는(기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역사로 그린 그림 3>은 아루나논드차이가 2012년에 시작한 비디오 삼부작의 에필로그이다. 그는 화면에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3부작의 주인공 찬트리와 함께 보낸 과거의 시간을 되돌아 본다. 드론과 같이 하늘에서 인간을 촬영하는 듯한 찬트리는 영혼이며, 웅웅거리는 소리이기도 하다.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또하나의 현존이다. 찬트리는 그의 어머니, 추타팁 아루나논드차이의 목소리로 작가에게 말을 건넨다. 둘의 대화는 현재와 미래, 개인적 경험과 집단적 경험, 디지털 시대에 상실된 기억을 노래한다. 불어와 태국어의 나레이션과 힙합음악이 더해진다.

>> 작가소개

태국에서 출생한 코라크릿 아루나논드차이는 뉴욕과 태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디어 아티스트다. 작가는 비디오, 회화와 퍼포먼스를 통해 역사나 자기-표상, 문화적 이탈 등의 주제들을 다룬다. 양식과 매체의 모방을 통해 작가는 서양과 태국의 문화적 내러티브들과 신념체계들, 예술적 실천들 사이의 공통점들을 찾고자 한다. 작가는 뉴욕의 MoMA PS1, 파리의 팔레 드도쿄와 베이징 UCCA, 헨트의 S.M.A.K.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5. 전시문의

이선미 / 큐레이터 / 대안공간 루프

Tel. 02-3141-1377

Email. gallery.loop.seoul@gmail.com

피지혜 / 코디네이터 / 대안공간 루프

Tel. 02-3141-1377

Email. gallery.loop.seoul@gmail.com

*고용량 이미지는 Dropbox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링크)

<https://www.dropbox.com/sh/3euv3izobhjt69/AABbl9ufKVzav-TAQqzB1zTJa?dl=0>

이미지 제공: 대안공간 루프

ALT SPACE LOOP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29 나길 20

Tel.82(0)2-3141-1377 / Fax.82(0)2-3141-7265

gallery.loop.seoul@gmail.com / www.galleryloop.com